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화 표현활동에 관한 지도 연구

-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송 수 은

2019년 2월

한국화 표현활동에 관한 지도 연구

-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과 정 명

송 수 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송수은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2월

A Study on the Expression Activities of Koreah Painting

-Centered on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Su-Eun Song

(Supervised by professor Jung-Myung Kwac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9. 0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Jung-Myung Kwack, Prof. of Art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한국화 표현활동에 관한 지도 연구

-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

송 수 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곽 정 명

미술교육은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한 미적 감수성 및 창의적 표현 능력의 발달과 새로운 미술 문화를 창조하여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미적 체험과 미술문화를 탐색하고, 고유의 전통미술과 폭 넓은 미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이 한국화 표현활동을 통해 한국화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쉽게 접하지 못했던 한국화 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전통미술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한국화 표현활동을 위한 미술 수업은 제주시 ‘○’ 초등학교와 서귀포 ‘㉠’ 초등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은 민화·사군자·인물화·산수화·영모화·화조화의 6가지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먼저 한국화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한 후, 한국화 용구와 더불어 붓 펜, 면봉, 이쑤시개 등과 같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품을 적극 활용하였다. 학생들이 한국화의 표현 양식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첫째, 원활한 표현 활동을 위해 분야별로 사군자는 매화, 영모화는 제주의 말, 산수화는 제주도의 풍경으로 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둘째, 학생들이 표현기법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이 있는 한지와 순지 및 두방지를 사용하여 교수 학습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수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고유의 미술인 한국화를 배우는 학생들은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화의 다양한 장르를 직접 체험하고, 실습함으로써 학생들은 한국화의 특징 및 전통 표현 기법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다.

셋째, 학생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도구보다는 면봉이나 붓 펜 등과 같은 일상적인 소재 및 재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은 각자 개성을 표현하면서 표현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넷째, 사군자와 민화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정서와 정신적인 내면세계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화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전통미술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화 수업지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창적인 표현능력과 전통 미술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이는 우리의 전통미술을 현 세대에 계승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9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3
1. 한국화의 개념	3
2. 한국화의 특성	4
3. 한국화의 분류	7
4. 한국화 재료 및 도구의 이해	17
III. 한국화 표현활동을 위한 교수-학습의 실제	22
1. 교수-학습계획	22
2. 학습과정 안 및 결과물	27
3. 결과 분석 및 기대효과	45
IV. 결론	47
참고문헌	49
<ABSTRACT>	51

표 목 차

<표 1> 수업모형	23
<표 2>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24
<표 3> 민화 교수·학습과정 안(1차시)	27
<표 4> 민화 작품 평가	29
<표 5> 사군자 교수·학습과정 안(2차시)	30
<표 6> 매화 작품 평가	32
<표 7> 자화상 교수·학습과정 안(3차시)	33
<표 8> 자화상 작품 평가	35
<표 9> 영모화 교수·학습과정 안(4차시)	36
<표 10> 말 작품 평가	38
<표 11> 산수화 교수·학습과정 안(5차시)	39
<표 12> 산수화 작품 평가	41
<표 13> 화조화 교수·학습과정 안(6차시)	42
<표 14> 화조화 작품 평가	44

그 립 목 차

<그림 1> 안견, 「몽유도원도」	7
<그림 2> 정선, 「금강 전도」	8
<그림 3> 윤두서, 「자화상」	9
<그림 4> 신사임당, 「수박과 들쥐」	10
<그림 5> 김홍도, 「씨름」	11
<그림 6> 신윤복, 「단오풍경」	11
<그림 7> 이암, 「모견도」	12
<그림 8> 장승업, 「호취도」	13
<그림 9> 어몽룡, 「월매도」	14
<그림 10> 이정, 「풍죽」	14
<그림 11> 작가미상, 「십장생도」	1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술교육은 미적정서·창의성·조형기능과 미술문화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9년 개정 초등교육과정에서는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르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다.”¹⁾

이처럼 미술교육은 우리 주변에서 보고 생활화 할 수 있는 미적체험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존중하여, 미술 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통미술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화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전통적인 문화와 예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미술 문화 창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는 매우 높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주체성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창의성과 미적 정서를 위한 전통미술의 지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행 미술교육에서는 한국화 용구준비가 번거롭고, 한국화에 대한 이해 및 미술 실기를 위한 공간과 수업시수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즉 전통미술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도 그 중 한국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이로 인하여 한국화의 지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한국화에 쉽게 접근하여 표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술 수업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화의 개념·특징 및 종류·표현기법 등 다양한 도구와 재료들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한국화의 표현방법을 지도하고, 학생들에게 전통미술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한국화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1)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년 개정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p.3.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국화 표현활동에 관한 학습 과정 안을 제시하여, 한국화 표현활동 지도 방안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 것이다.

연구 수업은 제주시 'o' 초등학교와 서귀포 '교'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전통미술의 대해 여러 가지 작품을 구상하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표현기법들과 도구, 재료들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한국화 미술 활동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먼저 한국화에 관련된 문헌을 참고하겠다.

또한 교수·학습 과정 안을 제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학생들의 작품을 통하여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I 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에 대해서 서술한다.

II 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화의 개념 및 특성, 한국화 종류에 따른 각 요소별 특징을 살펴보겠다.

III 장에서는 한국화의 다양한 표현활동을 위한 미술·교수 학습 과정 안을 총 6차시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실제 학생들의 수업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분석하여, 기대효과를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 IV 장에서는 이러한 미술·교수 학습과정 안의 결과물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한국화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지도하여 학생들이 한국화 재료를 경험하고 우리 문화와 예술에 대해 친근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한국화의 개념, 특성, 종류, 재료 및 도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화의 개념

한국화는 우리나라 전통 회화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양식과 기법에 의해 그려진 그림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전통회화를 한국화란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전통회화를 그동안 ‘동양화’란 명칭으로 불러 왔으며, 동양화란 용어가 유통된 것도 불과 5,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그것을 ‘서화(書畵)’라고 불렀었다.²⁾

서화는 글자 그대로 글씨와 그림을 한 묶음으로 통칭한 말이었으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글씨와 그림이 서화동근(書畵同根) 또는 동근(同根)이라고 해서 뿌리가 하나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원래 글씨와 그림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이며, 한국화의 그림이란 화선지에 먹이나 채색으로 그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그림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서화라는 말은 아무런 불편이나 혼란 없이 사용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22년 제1회 선전시대에는 조선총독부의 규약대로 ‘동양화’라 칭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 사람들의 그림을 중국화 또는 국화, 일본은 일본화라고 명하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이에 적합한 명칭이 요구 되었다.

이 시기에 붙여진 동양화는 한국적인 그림 보다는 일본화풍을 강조하고 서양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해방이후 계속 사용되었던 동양화의 명칭에 대해 “1971년 청감 김영기(淸 金永

2) 송수남(1995), 「한국화의 길」, 미진사, p.30.

基)는 ‘한국화론’을 제창하였으며, 그의 저서 「동양미술론」에서 ‘나의 한국화론과 그 비판해설’이란 제목으로 국적과 주체성이 뚜렷한 명칭, 즉 ‘한국화’를 사용하자”³⁾고 건의 발표하였다.

이후 1980년대 「국전(國展)」에서 동양화라는 이름 대신 ‘한국화’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개정된 제4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도 한국화라는 명칭을 계기로 대학교의 전공과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⁴⁾

이처럼 한국화는 전통적인 재료인 수묵과 채색을 사용하여 우리만의 독자적인 조형요소와 원리를 표현된 양식이며, 한국적인 고유한 정서와 주체성을 지닌 우리 민족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화의 특성

한국화는 정신성을 중히 여겨 사물의 내부에서 본질을 파악하고, 그 정신성을 나타낸 대표적인 예술이다. 삼국시대부터 기초를 자연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주의 사상을 직관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극도로 생략한 선과 면으로 요약해서 화면에 간소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생략과 단순화는 표면적인 묘사에 그치지 않고 마음을 그린다는 것에서 가장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⁵⁾

이와 같은 특징을 표현하기 위하여 한국화는 여백과 선의 아름다움, 농담(濃淡)의 변화, 번짐 등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주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표현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운생동(氣韻生動)이다. 작품 전체에 깃들여 있는 정신적인 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작가의 정신적 감정, 공간적 감각, 운율적 감정, 생명력, 생동적 감응력 등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작품에 기를 불어 넣는 것은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3) 노경상(1995), 「한국화 백문백답」, 금호문화, p.51.

4) 박용숙(1994), 「한국화 감상법」, 대원사, p.7.

5) 안동수(1981), 「전통 동양화 기법」, 미진사, p.4.

둘째, 선(線)이다. 한국화나 동양화에 있어 골격을 형성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일차적이고 제일 중요한 요소로 선이 제대로 구사되었느냐에 따라 작품의 성패가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선은 굵고 가늘며, 강하고 약한 강약, 진하고 연한 농담과 붓의 속도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선의 변화가 구사되어야 선이 살아서 작품에 생명감을 자아낼 수 있게 된다.⁶⁾

셋째, 여백(餘白)이다. 그림의 일부로 안 그려진 듯 그려진 공간을 의미하는데, 여백의 역할은 여유와 편안함을 주며, 상상력의 증대를 들 수 있고, 운치와 여운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로써 여백의 미를 살리지 않은 그림은 동양화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동양 그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며, 현대회화에서 주제를 강력하게 살리는 조형적 효과를 부각시킨다.⁷⁾

또한 한국화는 근본적으로 수묵과 채색화로 나뉘며, 수묵과 채색은 별개의 대립된 회화가 아닌 '상호보완' 관계이다. 이러한 양식적인 면에서 수묵화와 채색화 등을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수묵화는 채색을 하지 않고 먹으로만 그리는 동양화의 양식으로, 먹과 물을 조절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채색화에서 느낄 수 없는 담백한 멋과 운치를 엿볼 수 있다.

수묵화의 특징은 명암을 그리지 않는다는 점이며, 명암보다는 묵에 의한 농담의 변화로 사물의 거리를 표현한다. 이는 서양화의 과학적인 사고방식 보다는 정신성을 중히 여기고 사물의 내부로부터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동양화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복잡한 현대미술의 영역에서 수묵화는 훌륭한 장르가 되고 있다.

둘째, 채색화는 대상의 윤곽을 선으로 먼저 그리고 그 안에 채색으로 메꾸는 방법으로 수묵화, 수묵담채화 보다 강한 전통적, 규범적, 장식적, 도식적인 화풍으로 직업화가나 불화가, 민화가 등이 주로 사용해 왔다.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화는 한국인의 정신과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 선과 미를 중요하게 여겼고, 화면에 여백을 두어 암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며, 한국인

6) 안휘준(2008), 「미술사로 본 한국의 현대미술」, 서울대학출판부, pp.55~56.

7) 노경상(1997), 「한국화 백문백답」, 금호문화, p.58.

8) 조용진·배재영(2002),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 열화당, p.31.

의 미의식과 정서를 통해 다양한 한국화 재료를 활용하여 전통표현기법으로 나타내는 회화를 의미한다.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위시한 삼국시대의 회화이고, 고려시대의 불교회화. 조선시대의 신상임당의 초충도와 신윤복의 풍속화를 비롯한 일반회화와 민화 및 불교회화에서 높은 수준의 전통을 이룩하였다.”⁹⁾

현대에 이르러 한국화는 채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적인 색채 감각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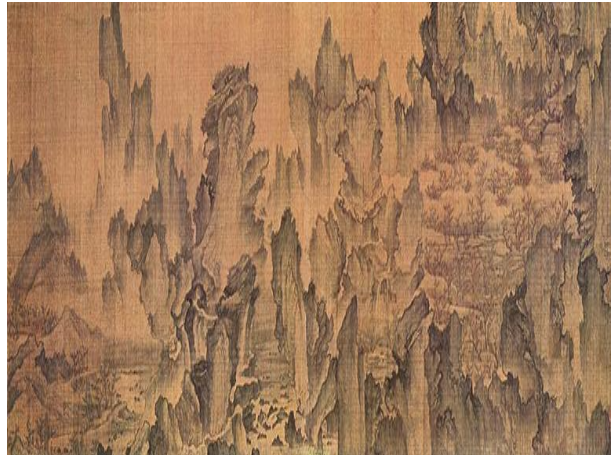
9) 안휘준(2008), 「미술사로 본 한국의 현대미술」, p.60.

3. 한국화의 분류

한국화는 형식과 소재에 따라 산수화·인물화·화조화·영모화·사군자화·풍속화 등으로 분류 하고있으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수화

산수화는 산과 언덕, 바다와 강, 풀과 나무, 구름과 안개 등 자연의 경치를 그린 것으로, 대자연의 모습을 일정한 화폭에 담아 기운 생동하도록 표현하고 있다. 또한 동양에서는 산수화가 단순히 자연의 사실적인 묘사뿐만 아니라 동양인들의 자연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그림 1> 안견 <몽유도원도>, 비단에 채색, 1447년, 일본텐리대학 중앙도서관

산수화는 자연을 바탕으로 소박하고 꾸밈 없는 아름다움을 주관

적으로 해석한 사의적인 표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화면의 대부분을 여백으로 공간감을 주고 있으며 그 곳에 제발을 넣어서 그 운치를 더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수화의 시작은 고구려의 고분벽화부터 시작되었으며 평남 강서구 덕흥리 고분의 벽화가 산수화와 관련한 요소를 보여주는 예이다.¹⁰⁾

산수화는 내용에 따라 자연을 직접 보고 그린 실경산수와 진경산수, 채색을 위주로 하는 금벽산수(金碧山水)와 청록산수(靑綠山水) 관념에 의해 표현한 관념산수 등으로 구분된다.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산수화는 안견의 <몽유도원도>이며, <그림 1>은 안평대군의 꿈을 듣고 안견이 3일 만에 완성한 그림이다.¹¹⁾

예전의 회화 흐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한 반면, 이 <그림 1>은 왼편 하단부에서 시작해 오른편 상단부로 진행되어 되어 바라보고 있다. <그림 1>의 시

10) 안휘준(2000),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p.33.

11) 박차지현(2014), 「청소년을 위한 한국미술사」, 두리미디어, pp.234~235.

선은 몽유도원도의 입구로부터 가상의 여행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시각적인 절정에 도달하도록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또한 평원법과 심원법 등 다양한 구도법을 사용하여 산과 고원이 어우러져 웅장감이 더욱 두드러진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진경산수화는 정선의 <금강전도>, <금강산만폭동>, <인왕제색도> 등이 있다. 정선은 자연을 관찰하여 사생하였고, 이를 통해 습득되는 한국적인 정취와 특색을 반영하였다. <그림 2>는 정선이 그린 <금강전도>로 거대하고 웅장한 금강산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 본 것처럼 그렸으며, 강함과 부드러움, 수직과 수평, 점과 선, 흰색과 검은색이 대비를 이루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정선의 필치가 무르익은 대작이라고 할 수 있다.¹²⁾

이러한 표현법을 부감법이라고 하는데 금강산 그림에서 정선이 자주 사용하는 시점이다.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화면에 딱 차는 구성과 강한 필묵법, 근경에 중요한 사물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2) 인물화

인물화는 인물을 주제로 그린 그림으로 중국회화에서 처음 고개지(顧愷之)가 그린 것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에 인물화가 높은 수준으로 발달했는데, 고려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수화가 등장하면서 서서히 인물화가 퇴색하게 된다. 이렇듯 인물화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시대에 따라 화풍과 내용이 변화면서 초상화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인물화가 꾸준히 발전했다.



<그림 2> 정선 <금강전도>, 종이에 담채, 1734년, 리움박물관

12) 박차지현(2014), 「청소년을 위한 한국미술사」, 두리미디어, pp.234~235.

인물화는 조선 중기 회화에서 산수화 못지않게 중요시 되며, 산수화처럼 다양하지만 변화의 추이가 뚜렷하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과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¹³⁾

인물화에는 실제의 인물을 그린 초상화, 일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풍속 인물화, 신선이나 불교의 부처와 보살 같은 종교인물을 그린 도석 인물화, 역사 속 인물의 유명한 이야기를 다룬 고사 인물화 등이 외에도 칠기, 도자기, 직물, 각종 공예품을 장식할 때 인물화를 많이 그렸다.¹⁴⁾

<그림 3>은 윤두서의 대표적인 작품 중 최초의 자화상으로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며 콧구멍 사이로 빠져나온 코털까지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그의 획기적인 조형감각은 유교적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며, 실학의 이념을 지지하는 그의 급진성을 드러내고 있다.¹⁵⁾

<그림 3>은 윤두서의 <자화상>으로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세계까지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윤두서 <자화상>, 종이 바탕에 담채, 1987년, 고산유물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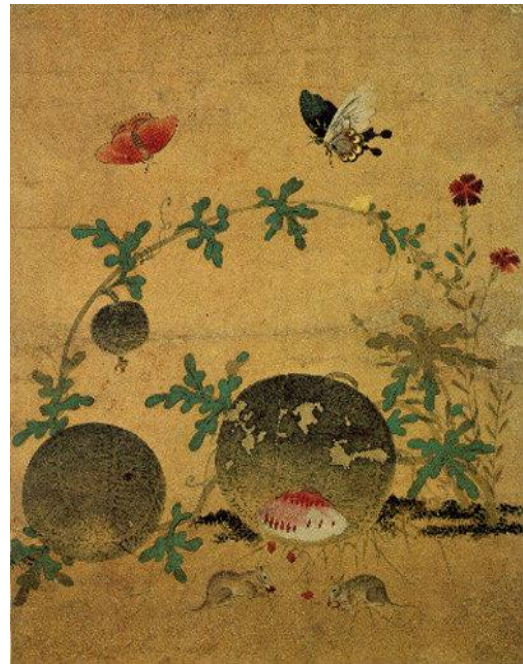
13) 위의 책 p.143.

14) 안희준(2001), 「한국회화사 연구」, 시공사, p.529.

15) 조인수(2013), 「인물화, 군자의 삶, 그림으로 배우다.」, 다섯수레, pp.6~7.

3) 화조화

화조화는 꽃과 새를 그린 그림으로 일찍부터 동양회화에서 발달되어 온 그림의 한 분야이다. 화조화는 주로 동양인들이 좋아하는 모란이나 작약, 연꽃이나 부용, 복숭아꽃, 석류, 배꽃 등과 함께 참새·피꼬리·두견새·원앙·비둘기·까치·까마귀 같은 새들을 배치하여 그렸다. 근래에는 등꽃, 장미, 목련, 비파, 파초도 많이 그려진다.¹⁶⁾



<그림 4> 신사임당 <수박과 들쥐>, 종이에 채색, 16세기, 국립중앙박물관

화조화와 비슷한 화훼화(花卉畵)는 이름 모를 들꽃이나 풀꽃들과 함께 곤충을 그린 그림이다. 중국의 화훼화는 남북조시대부터 그려졌으며,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과는 달리,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세밀하지도 않고 소박하고 은은한 우리 고유의 특징을 담고 있다.¹⁷⁾ 이처럼 화조화는 진경산수나 풍속화에서 보듯이 한국적인 특징이 있으며, 조선중기 이후의 그림들이 많이 남아있다. 특히 김정·신세립·조지운은 새 그림의 대표적인 화가이며, 화훼와 초충도에는 신사임당·이우·남계우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작가로 조선시대 신사임당은 주로 수박이나 오이·가지·포도·패랭이꽃·들국화 같은 풀꽃들과 개똥벌레·밭뫼·여치·풍뎅이·오줌싸개 같은 곤충들을 많이 그렸다. 특히 신사임당의 초충도 <그림 4>은 수박의 성장과정을 정확히 알고 그린 그림으로 담백하고 안정된 구도와 소박하고 정가한 채색으로 섬세하고 은화하게 한 여름 수박 밭의 정경을 짙은 색채로 그렸다.¹⁸⁾ 이와 같이 신사임당은 생활 속의 다양한 소재를 짜임새 있는 화면 구성으로 표현하였다. 부드러운 채색과 섬세한 묘사는 여성의 우아함과 단아함을 지니면서 재치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16) 백인산(2012), 「선비의 향기, 그림을 만나다. 화훼영모·사군자화」, 다섯수레, pp.14~15.

17) 윤희순(1994), 「조선미술사통론」, 동문선, p.185.

18) 홍용선(2012), 「한국화의 세계」, 월간 미술세계, p.27.

4) 풍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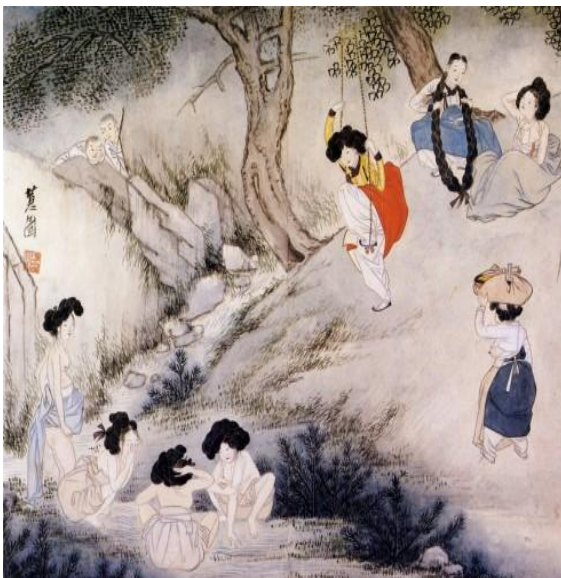
풍속화는 많은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는 행실과 감성, 욕구를 풀어 사람이 살고 있는 생활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다. 17~18세기 선비화가인 윤두서와 조영석에 의해 민중생활이 회화적 소재로 그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진보적인 풍속화가 제작되었다.¹⁹⁾

이 시기의 대표적인 화가는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 등이 있다. 그 중 김홍도의 작품은 주변상황에 대한 감정 표현을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표출하였다. <그림 5>는 김홍도의 <씨름도>로 치밀함과 해학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승리와 패배, 이에 따른 안타까움과 야단법석 가운데 무관심 등 상황의 설정이 잘 묘사된 것이 특징이다.²⁰⁾



<그림 5> 김홍도 <씨름>, 수묵채색화,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도가 서민생활 풍경을 담은 풍속화를 그렸다면, 신윤복은 주로 남녀의 애정



<그림 6> 신윤복 <단오풍정>, 종이에 채색, 간송미술관

표현이나 유희 문화를 풍속화로 남겼다. 당시 유희를 찾아 볼 수 없는 과격적인 표현으로 신윤복은 대담하고 노골적인 애정을 묘사했다.

<그림 6>은 신윤복의 <단오풍정>으로 까까머리 상좌승들이 바위사이로 그림 속 여인들을 훑쳐보고 있고 하얀 버선발, 붉은 치마와 흰 속곳, 여인들의 붉은 입술과 유두는 자극적인 색채로 표현하였

19) 이태호(1996).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p.143.

20) 안휘준(2000),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p.303.

다. 신윤복의 풍속화는 대체로 인물들의 얼굴이 가름하고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 으며, 가늘고 탄력 있는 필선과 감각적인 색채로 여인의 단아한 모습과 맵시를 잘 표현했다.²¹⁾

이처럼 풍속화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소박한 한국의 인간상, 반상의 대비와 양반층 세태를 꼬집은 풍자화들로 소탈하고 해학적이며, 당대의 사회성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5) 영모화

영모화는 새와 짐승을 그린 그림으 로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학·거북·고 양이·나비, 입신추세를 뜻하는 잉어· 쏘가리·게 등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 그림 소재로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²²⁾

조선시대 왕족 출신인 이암은 짐승 그림에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매나 개 같은 동물 그림들만 남아있다.

영모화의 대표적인 화가는 조선 초기의 이암, 김제, 조선 중기의 김식과 윤두서가 있으며, 조선 후기에 김두 량, 심사정, 김홍도 등, 조선 말기에 는 홍세섭, 장승업 등이 있다.



<그림 7> 이암 <모견도>, 종이에 채색, 조선 초기,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7>은 이암이 그린 모견도이

며, 개와 강아지가 나무 그늘 아래 여유롭게 쉬고 있다. 방울이 달린 어미 개 등 위로 올라가 낮잠을 즐기고 있는 강아지와 어미 가슴에 매달려 정신없이 젖을 빨고 있는 강아지, 또 다른 강아지는 어미의 젖을 빨기 위해 어미의 가슴속을 파

21) 박용수(1999), 「한국미술사 이야기」, 예경, pp.60~64.

22) 백인산(2012), 「선비의 향기, 그림으로 만나다 화훼영모·사군자화」, 다섯수레, p.11.

고들고 있다. 이런 강아지들이 사랑스럽고 대견스러운 지 먼 데를 바라보는 어머니 개의 눈빛이 평온하다. 모견도의 나무는 문인화 양식으로 하였고, 앞에 누워있는 개와 강아지는 채색기법으로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영모화의 뛰어난 장승업은 매, 독수리, 기러기를 주로 그렸으며, 그의 실력을 유감없이 나타낸 호취도는 최고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그림 8>은 나뭇가지를 거침없는 필선으로 묘사해 여백을 남겼으며, 두 마리 매가 서로 의식하듯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위쪽 매는 아래 매의 자리를 노리며, 아래 매는 안보는 척 하면서 위쪽 매를 의식하는데 그의



<그림 8> 장승업 <호취도>, 종이에 수묵담채, 호암미술관

거칠고 남성적인 성격의 필선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이처럼 장승업은 소재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묘사해 섬세한 채색을 입혀 생동감이 있는 필묘를 표현했다.²³⁾ <그림 8>은 장승업의 <호취도>로 섬세하고 활달한 필치와 화면의 구성 등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6) 사군자화

사군자는 매화·난초·국화·대나무 등 네 가지 식물을 총칭하는 이름으로 매화는 잔설이 채 가지지 않은 이른 봄추위를 무릅쓰고 맨 먼저 꽃을 피우고, 난초는 깊은 산중에서도 청초한 자태와 은은한 향기로 추위를 맑게 하며, 국화는 늦 가을 다른 꽃들이 시들어 갈 때 꽃꽂이 모진 서리를 이겨내며, 대나무는 칼날 같은 눈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에도 푸름을 잃지 않고 한결 같이 군자를 닮아 이것을 소재로 수묵화 양식으로 그린 그림을 사군자화라 한다.²⁴⁾

23) 이양재(2002), 「오원 장승업의 삶과 예술」, 헤들누리, p.124.

24) 백인산(2012), 「선비의 향기, 그림으로 만나다 화훼영모·사군자화」, 다섯수레, p.57.

사군자화는 고려시대에 사대부 계층의 등장으로 매·난·죽이 즐겨 그려졌다는 기록이 몇 군데서 확인됐지만, 조선시대 때 성행했다. 조선 중기의 사대부 화가 중 이정, 오달제, 어몽룡의 묵매도와 묵죽도가 유명하다. 특히 어몽룡은 당시 명사들이 뽑은 나라에서 제일가는 화사로 묵매화의 전형을 확립한 최고의 묵매 화가로 부른다.²⁵⁾

<그림 9>은 어몽룡의 탁월한 안목과 미감으로 매화의 고고한 자태와 맑고 깨끗한 품격을 담아낸 작품이다.

둥근 달을 배경으로 곧게 서 있는



<그림 9> 어몽룡 <월매도>, 비단에 수묵, 국립박물관



<그림 10> 이정 <풍죽>, 수묵, 간송미술관

매화나무를 그린 그림으로 하단의 나무 줄기는 모두 부러져 있고, 그 사이로 곧게 뻗어 올라간 가지에는 매화꽃이 달려 있다. 텅 빈 여백과 간결한 매화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은은한 달밤의 분위기를 전해준다.

<그림 10>은 이정의 묵죽 중 백미로 꼽히는 작품인데, 거친 바위틈에 뿌리를 내린 대나무 네 그루가 휘몰아치는 강풍을 맞고 있다. 뒤쪽 세 그루 대나무는 이내 부러질 듯 요동치지만, 한복판에 자리한 한 그루의 대나무는 댓잎이 나부끼고, 줄기가 휘지만, 바람에 당당히 맞서고 있다. 그림자처럼 엷은 먹으로 처리한 후면의

25) 조용진·배재영(2002),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 여화당, p.85.

대나무들은 거센 바람의 강도를 느끼게 한다.²⁶⁾

이처럼 <그림 10>은 고난과 시련에 맞서는 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본래의 의미와 미감을 잘 살려낸 작품이다.

7) 민화

민화는 일반 서민들이 애호하던 그림으로 생활공간을 장식한다거나 민속적인 관습으로 제작되었던 실용화를 뜻한다. 민화는 대개 본격적인 미술수업을 받지 않은 무명의 화가들이 그렸으며, 서민들의 일상생활 양식이라든지 관습 등에 바탕을 두고 발전했기 때문에 일회적인 창작이기보다는 반복적이고 형식화된 유형에 따라 계승되었다.²⁷⁾

이 중 십장생도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고 생각한 사물을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으로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거북, 소나무, 대나무, 해, 사슴, 학, 돌, 물, 구름, 불로초 등 10가지의 자연물로 구성되어있다. 이처럼 영원히 늙지 않고 오래오래 장수하고자하는 염원이 담긴 그림이다. 민화는 화조, 동물, 물고기, 산수, 수렵, 풍속, 일화, 세시풍속, 문자, 무속 등을 소재로 사용하였으며,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십



<그림 11> 작가미상 <십장생도>, 궁중유물전시관

26) 백인산(2012), 「선비의 향기, 그림으로 만나다 화훼영모·사군자화」, 다섯수레, p.59.

27) 장경희 외 5명(1994), 「한국 미술문화의 이해」, 예경, p.184.

장생도, 작호도, 문자도, 책가도, 고사도, 평생도 등이 있다.

<그림 11>은 작가미상의 십장생도로 주로 정월 초에 새해를 축하하고 복 받기를 기원하던 세화나 회갑에서 장수하기를 희망하며 그려졌던 그림으로, 일정한 형식과 도식적인 형태에 짙고 화려한 채색을 사용하여 장식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책거리는 책을 비롯하여 선비와 관련이 깊은 문방구와 각종 기물들을 조합하여 구성한 그림이다. 형식은 크게 탁자를 중심으로 배열되는 경우와 서안을 중심으로 배열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탁자를 중심으로 한 책거리 그림은 서양 화법에 의한 입체법과 불완전한 투시도적인 원근법을 사용하며, 서안 책거리 그림은 전통적인 역원근법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다. 주로 사랑방이나 서재를 장식하는 병풍 그림이 많다.²⁸⁾

이처럼 민화는 묘사의 세련미와 품격이 일반회화보다 뒤떨어지지만, 익살스럽고 소박한 형태로 대담한 구성과 현란한 색채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의 미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화는 나쁜 귀신을 막는 주술적인 성격의 액 막 그림이나, 세시풍속과 같은 행사용 및 문, 벽장, 벽, 병풍 등을 장식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이상으로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영모화, 사군자화, 풍속화, 민화 등 한국화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처럼 한국 정서를 배움으로써, 한국고유의 미의식과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28) 장경희 외 5명(1994), 「한국 미술문화의 이해」, 예경, pp.185~187.

4. 한국화 재료 및 도구의 이해

전통 미술 교육을 통해 우리 미술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긍지를 지닐 수 있으며, 특히 한국화 수업에서 우리 문화의 장점을 배울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한국화 재료와 용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종이

종이는 식물의 섬유를 물에 풀거나 합성섬유 등을 원료로 하여 이것을 얇고 평평하게 서로 엉기도록 한 다음 물을 빼고 건조시켜 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점착으로 형상을 가지게 한 것이다.

한국화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화선지, 죽지(竹枝), 마지(麻紙), 저지(닥종이), 순지(純至), 장지(長指), 견지(繭紙)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러한 종이의 역사는 <일본사기>에 285년 백제의 왕인이 종이에 쓴 논어를 전해주었다는 기록과 1966년 석가탑을 보수할 때 종지로 된 목판 인쇄술<무주정광 대다라니경>에 발견을 통해 알 수 있다.

닥나무의 껍질은 섬유발이 부드러우면서도 질겨 종이의 재료로 사용하기 적합하며, 중국 선주(先主) 지방(地方)의 화선지가 질이 좋고 유명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한지제조 기술은 4세기 이전에 이미 개발된 것으로 보이며, 그 제조 방법이 대체로 고대 중국에서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화선지는 서예 용지로도 쓰이며, 내구성이 좋아서 먹이 잘 번지거나 스며들어, 오랜 세월 동안 변질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제 선정을 할 때 먹의 농담과 먹이 번지는 정도를 고려하여 화선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닥종이는 질겨 글을 쓰는 서화에 알맞으며, 마지는 두터워 채색화에 좋은데 서양의 와트만지가 마지에 해당된다. 먹을 적게 흡수하는 종이가 좋고, 산수화는 먹을 잘 흡수하는 종이가 좋다.²⁹⁾

죽지는 담황색으로 지질이 얇고 뽀뽀해 채색화에 좋고, 먼지는 목면으로 만든

29) 전영탁·전창립(2005), 「알고 쓰는 미술재료」, 미술문화, p.88.

종이가 아니라 선지 중에서 목면처럼 부드러운 종이를 말한다. 장지는 닥을 겹쳐서 만든 것으로 붓, 자국이 화선지보다 덜 나타나 겹쳐 그리기가 쉬워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화선지는 매끄러운 쪽을 겹으로 쓰며, 적당하게 잘라서 사용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구김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 비닐에 씌워서 보관해야 한다.³⁰⁾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여 학생들에게 미리 지도하여 어떤 소재를 표현 하느냐에 맞추어 종이를 선택해야 한다.

2) 붓

붓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로 짐승의 털을 추려 모아 원추형으로 만들어 죽관(竹管)이나 목축(牧畜)에 고정시킨 것이다. 일반적으로 붓은 짐승의 털이 원료로 사용되는데 염소털, 족제비털, 돼지털, 고양이털, 토끼털, 쥐 수염, 사슴 털 등 이 있다. 털은 부드럽고 강하며, 끝의 모양이나 탄력성 등에 차이가 있어 쓰임에 따라 각각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필모는 염소털, 족제비 털이 대부분이며, 보통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흰 염소 털은 다른 짐승 털의 비해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마모가 적어 오래 쓸 수 있으며, 털이 부드럽고 길어서 장봉 필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염소 털은 붓끝의 강함과 뽀족함 등 다른 재료에 비해 우수하고, 화선지처럼 부드러운 종이에 적당한 탄력성을 가졌으며, 흡수력이 좋아 먹물을 잘 흡수한다.³¹⁾

일반적으로 붓은 수묵화용과 채색화용으로 나뉘는데 수묵화에 쓰이는 붓은 축이 길고, 탄력이 있어 갈라지지 않으며, 꼬거나 회전시켜도 훼손되지 않는 것이 좋다. 채색용 붓은 털이 많고 부드러우며 짧아야 쓰기 편하다. 선묘용 붓, 색칠용 붓, 얇게 펴기 용 붓, 넓게 칠하기 용 붓 등 붓의 구조와 길이에 따라 각각 성질이 다른 선이 나오기 때문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³²⁾

좋은 붓은 끝이 날카롭고 길이가 일정하며, 붓을 처음 사용할 때 붓털이 풀로

30) 앞의 책, p.88.

31) 조용진·배재영(2002),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 열화당, pp.181~182.

32) 조용진(1992), 「채색화 기법」, 미진사, p.81.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 붓을 담가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풀을 씻어 낸 후 맑은 물에 헹궈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먹

먹은 붓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는 문방구로 중국에서는 천연 광물성 석묵을 썼는데, 현재는 연필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손으로 만져보면 미끈미끈하고 석탄이나 금광석과 같은 시초로 흑색 또는 회색이다.

먹은 원료에 따라 송연묵(松煙墨), 유연묵(油煙墨), 칠연묵(漆硯墨), 백묵(白墨), 안색묵(顔色墨), 묵즙(墨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송연묵은 소나무를 태워 그을음으로 만든 먹이며, 푸른색을 띄고 있어 청묵 이라고도 한다. 유연묵은 기름을 태워 생긴 그을음을 재료로 만든 먹인데, 동유와 채유가 주로 쓰인다. 백묵은 흰색 먹이며, 칠연묵은 동유, 청유, 마유, 저유로 만든 그을음뿐 아니라 패칠을 태워 만든 묵이다. 또한 색상에 따라 담묵, 자묵, 고묵 등으로 나뉘며, 좋은 먹에는 흑색의 미세한 탄소 분말인 흑색안료(黑色顔料) 등이 잘 섞여 있다.³³⁾

우리나라 먹의 특성은 색깔이 검고, 오래되어도 빛깔이 퇴색하지 않아, 기품이 나는데, 특히 고서화가 잘 부패되지 않는 이유는 먹이 나무, 비단, 명주, 종이 등에 부식 작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먹은 아교 성분으로 붓의 움직임을 민첩하고 원활하게 하며, 농담과 번짐이 자유롭다. 아울러 먹은 부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종이 깊숙이 침투하여 흡수력이 좋은 한지에 적합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³⁴⁾

또한 좋은 먹은 농묵이나 담묵일 때 윤이 나며, 먹색이 아름답다. 그러나 질이 낮은 먹은 농묵일 때 윤이 없고, 담묵일 때는 더욱 지저분하게 보인다. 특히, 먹을 갈 때는 먹의 아랫부분을 잡고 갈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물기를 닦아 상자에 넣어 그늘에 보관한다.

4) 벼루

벼루는 먹을 가는 문방구로 벼루에 먹이 갈리지 않고 벼루가 갈리면 먹물이

33) 전영탁·전창립(2005), 「알고쓰는 미술 재료」, 미술문화, p.86.

34) 정종미(2001), 「우리 그림의 색과 칠」, 학교재, p.153.

탁해지기 때문에 먹보다 강도가 강해야한다. 벼루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주산지이며, 중국의 단계연, 용미연, 등니연 등이 명품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벼루돌은 함경북도에서 나는 종성석(鍾城石), 평안북도 위원에서 나는 위원석(渭源石), 해주의 해주석(海州石), 충청남도 보령군 남포에서 나는 남포석(藍浦石), 진천군의 상산자석(常山紫石), 안동의 고산석(高山石) 등이 있는데, 이 중 남포석이 가장 많이 채취되어 벼루돌로 많이 사용 된다.³⁵⁾

특히 벼루는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표면이 좋아야하고, 물이 쉽게 마르지 않아야 하며, 보관할 때 물을 부어두는 것이 좋다.

5) 채색 물감

그림을 그리거나 섬유 등을 물들이는 데 사용하는 재료로 옛날에는 대부분 자연물에서 추출하거나 가공하여 만들었는데, 요즘은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물감을 만들며, 원료에 따라 광물성, 식물성, 동물성이 있다.³⁶⁾

전통적인 물감은 보통 채색 안료를 아교로 개서 쓰는데 안료를 기름에 개서 쓰면 유화, 꿀 또는 아라비아고무를 물에 개면 수채화라 한다. 한국화에 사용되는 물감은 정제된 가루 원료인 분채, 아교를 섞어 반죽해서 그대로 굳힌 붓채와 접시 물감, 튜브에 넣은 튜브 물감 등이 있다. 또한 동양화의 그림 막은 유화나 아크릴처럼 견고한 것이 아니므로 내구성이 안료의 품질에 달려 있어, 아무리 아교로 조절을 한다 해도 작품의 내구성 약화가 대부분 안료의 퇴색에서 오기 때문이다.³⁷⁾

그밖에도 종이받침, 붓말이개, 접시 등 갖추도록 한다. 화선지는 비닐에 싸서 그늘진 곳에 바람이 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붓과 접시는 채색할 때와 먹물을 사용할 때 나눠서 사용해야 하므로 2개씩 준비한다. 연습한 종이는 붓을 닦아 먹물의 농담과 수분을 조절한다.

따라서 한국화의 재료와 문방사우인 붓, 먹, 종이 등의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채색 재료인 분채물감 외에도 다양하다는 점을 지도해야 한다.

35) 앞의 책, p.160.

36) 위의 책, p.210.

37) 전영탁·전창립(2005), 「알고쓰는 미술 재료」, 미술문화, p87.

6) 기타

(1) 문진

그림을 그릴 때 화선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쇠, 나무,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손가락 크기의 예쁜 조약돌 몇 개만 있어도 충분하다.

(2) 아교

아교란 교의 산지인 동아현의 아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소나 짐승의 가죽과 뼈를 석회수 용액에 담가 뜨거운 물에서 추출한 것을 냉각하여 응고시킨 것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아교는 응고된 황갈색 고체로 대개 막대기처럼 되어있으며, 그림에 사용할 때는 뜨거운 물에 넣어서 액체로 만들어 사용한다. 아교는 원료에 따라 말, 양, 소 등 척추동물의 가죽이나 뼈 등으로 만드는 수교와 대구, 상어, 가지미의 비늘, 가죽이나 뼈 등으로 만드는 어교 등 두 종류가 있다.

채색화에서 쓰이는 안료 대부분은 분말상태의 입자로 물감입자들을 서로 결합하여 화면에 고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착제가 필요하다. 또한 채색화는 아교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렸기 때문에 습기에 취약하나 아직까지 좋은 고착제로 평가받고 있다.³⁸⁾

이처럼 학생들은 한국화 재료와 용구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여, 한국화에서 쓰이는 화선지나 베틀 등 준비물을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미리 미술실에 순지, 장지 등 필요한 한국화 재료를 준비하여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료와 용구에 대한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도해야 한다.

38) 조용진(1992), 「채색화기법」, 미진사, p.95.

Ⅲ. 한국화 표현활동을 위한 교수-학습의 실제

본 장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국화 표현활동을 위해 주제별로 영역을 나누어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자 한다.

1. 교수·학습계획

한국화의 미술수업지도를 위해 학습목표를 세우고, 각 장르별로 나누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한국화에 쉽게 접근하고, 표현 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미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도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전통미술을 통해 한국화의 독창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전통문화의 우수함과 한국화의 고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화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1) 학습목표

- ① 한국화 전통미술에 대한 개념, 특징, 분류, 표현기법들을 이해 할 수 있다.
- ② 전통 미술활동을 통해 다양한 재료와 용구의 특성 및 사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 ③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창의적인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
- ④ 전통미술을 학습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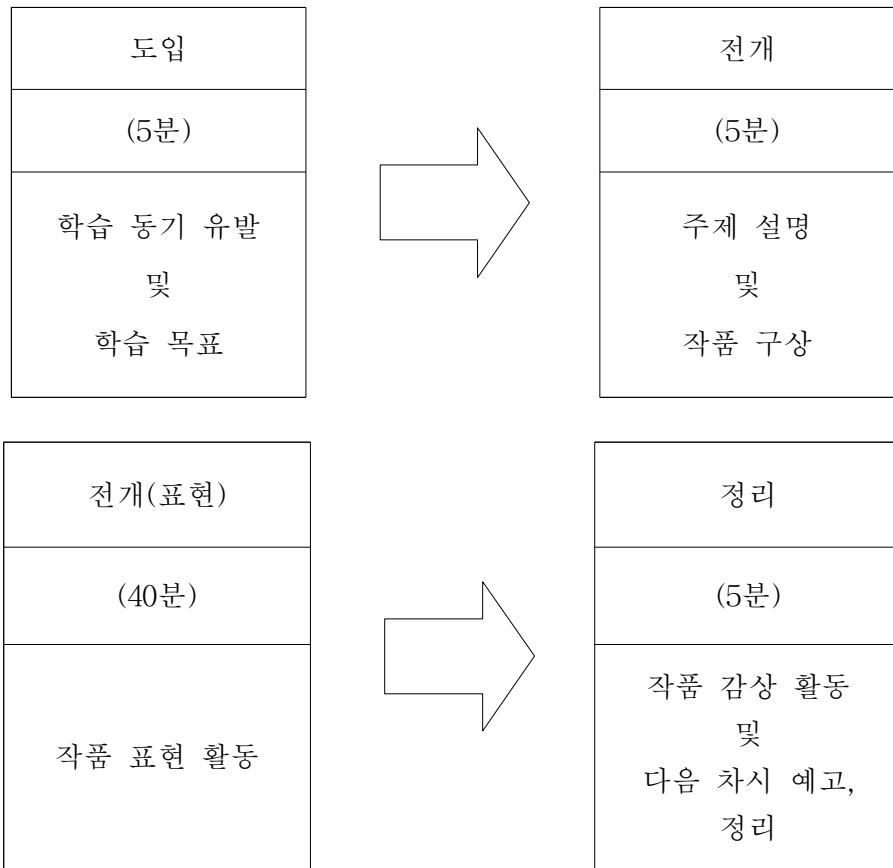
2) 지도 및 유의사항

- ① 한국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흥미를 유발시켜 재미있게 활동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다양한 작품들과 학생들의 완성된 작품 감상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 한다.

- ③ 먹물이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으므로 조심하 하도록 주의를 준다.
- ④ 교사는 주제에 관한 학습방향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수업모형

한국화 재료를 활용한 미술수업에 관한 학습과정을 모형으로 구성하여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수업모형

4) 학습계획

한국화 표현활동을 위해 제주시 ‘ㅇ’ 초등학생 방과 후 교실과 서귀포시 ‘교’ 초등학교 1·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였다. 한국화 전통 미술에 관한 특징과 종류, 표현 기법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종이인 순지, 두방지와 다양한 용구로 몰골법, 구름법, 갈필법 등의 표현 방법을 익혀 한국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교수·학습 계획을 수업시간에 적용한 6차시로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여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차시	학습 주제	학습 내용	학습 활동	학습 자료
1차시	민화 (까치, 십장생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화의 개념 이해 - 다양한 작품들 감상 - 민화 그리기 	개인 및 전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민화의 개념과 기법에 대한 내용 및 그림 자료), 한지, 먹물, 동양화 붓, 물감, 채색 붓, 연필, 지우개, 사인펜
2차시	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화의 개념과 상징적 의미 이해 - 매화의 형태, 생김새 등에 관한 설명 - 매화 그리기 	개인 및 전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매화 그림에 대한 자료), 순지, 동양화 붓, 붉은 물감과 노란 물감, 연필, 지우개, 물통, 채색 붓

3차시	자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화상의 개념 이해 - 윤두서의 <자화상> 감상 -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고 특징을 살려 그리기 - 여러 가지 색깔들로 채색 	개인 및 전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윤두서의 <자화상> 그림 자료), 두방지, 동양화 붓, 먹물, 물감, 채색 붓, 색연필, 신문지, 연필, 붓 펜, 테이프, 자화상 사진, 지우개, 자화상 사진
4차시	영모화 (제주도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의 형태, 특징 이해 - 윤두서의 <말> 작품 감상 - 제주 지역의 '말'을 보고, 여러 동작들을 관찰하여 그리기 (풀에서 뛰어다니는 모습, 풀을 뜯어먹는 모습, 나무 밑이나 그늘에서 서 있는 모습, 풀에서 걷는 모습 등등) 	개인 및 전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말에 대한 사진 자료), 두방지, 물감, 크레파스, 동양화 붓, 채색 붓, 물통, 연필, 지우개
5차시	산수화 (천지연 폭포, 성산일출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수화의 개념 이해 - 다양한 작품 감상 - 천지연 폭포, 한라산 등 그리기 	개인 및 전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산수화의 대한 자료와 그림 자료), 순지, 동양화 붓, 먹물, 물감, 연필, 지우개

6차시	화조화 (곤충, 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조화의 개념 이해 - 화조화 감상 - 신사임당에 <수박과 들쥐>·<초충도> 등 그림 그리기 	개인 및 전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화조화에 대한 자료와 그림 자료), 두방지, 물감, 동양화 붓, 먹물, 채색 붓, 물통, 연필, 지우개, 사인펜, 색연필
-----	------------------	---	------------	---

<표 2>는 학습지도안을 바탕으로 학습목표를 이해하고, 다양한 수묵화 도구를 이용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한국화에 흥미를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민화는 작품을 감상한 후 학생들이 다양한 색이 있는 한지 위에 여러 가지 채색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매화는 전통회화기법 중 갈필법을 설명하고, 먹의 농담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자화상은 자신의 얼굴을 관찰한 후, 화선지 위에 여러 가지 재료로 수업을 진행한다.

영모화는 제주도 말의 형태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 동작들을 관찰하여 표현하며, 산수화는 정선의 <만폭동>을 감상한 후 한라산과 천지연 폭포 등을 순지에 표현하도록 한다. 화조화는 신사임당의 초충도 중 <수박과 들쥐>·<오이와 개구리> 작품 등을 감상하고 섬세하게 묘사하여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이처럼 한국화 표현활동을 통해 우리 미술의 고유성과 전통회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한국화 재료와 여러 표현기법들을 익힘으로써, 한국화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 학습과정 안 및 결과물

한국화는 여러 장르별로 개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한국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지도안을 구상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학습 결과물과 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민화

민화는 대체로 무명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으로 표현이 자유롭다. 따라서 학생들이 민화의 특징을 살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민화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표 3>과 같다.

<표 3> 민화 교수·학습과정 안(1차시)

교과	미술	대상	초등학생 1~3학년	차시	1/6(60분)
학습주제	민화				
학습목표	1. 민화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채색할 수 있다.				
준비물	ppt자료(민화에 대한 자료), 다양한 색이 있는 한지, 먹물, 접시, 동양화 붓, 물티슈, 신문지, 물감, 채색 붓, 붓펜, 민화에 그림 복사본, 사인펜				
과정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자, ▷유)
도입 (5분)	예시 작품				▶ 일월오봉병, 4폭 병풍, 비단에 채색. 국립고궁박물관

	<p>학습 동기 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화의 개념을 알아본다. · <일월오봉병>을 감상하고 설명한다. · 질문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p>▶ 출처 : 안휘준 (2000),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p>
	<p>학습 문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화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채색할 수 있다. 	
<p>전개 (50분)</p>	<p>작품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민화를 여러 장 인쇄하여 학생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고를 수 있다. · 학생들은 다양한 색이 있는 한지에 연필로 매화의 밑그림을 그린다. · 접시에 먹물을 조금씩 부어서 붓으로 연필 선을 따라, 다시 한 번 선으로 밑그림을 그린다. · 민화의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 색을 활용하여 채색 붓으로 색칠한다. 	<p>▷ 순회 지도를 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도와준다.</p>
<p>정리 (5분)</p>	<p>감상 활동 차시 예고 정리 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그리는 동안에 느낀 점과 완성된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 다음 차시 예고를 한다. · 주변을 깨끗이 정리 한 후 인사를 한다. 	<p>▷ 다른 사람의 발표를 경청한다.</p>


<표 4> 민화 작품 평가

	<p>붓 펜을 사용해 다양한 선을 표현하였고, 십장생도를 물결의 리듬처럼 산과 바다, 파도를 흥미롭게 표현하였다.</p>
	<p>까치의 생김새와 나무의 형태를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습한 흔적이 역력한 작품이다.</p>
	<p>실제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듯 다양한 색감으로 세밀하게 물고기의 수영과 연꽃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p>
	<p>붓과 먹, 채색을 사용하여 나비와 열매, 곤충, 풀들의 특징을 잘 표현하였다.</p>
<p>이 수업을 통해 민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민화를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 쉽고 편리한 붓 펜과 물감을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표현활동 과정에서 색깔 한지와 다양한 색채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였고, 반복적인 연습 후 민화를 자유롭게 표현하였다.</p>	

2) 매화

매화는 사군자 중 ‘이른 봄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운다.’하여 불의에 굴하지 않는 옛 선비들의 고결한 문인화 정신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사군자의 개념 및 매화의 형태를 이해하고, 붓의 사용을 익혀, 매화의 다양한 표현 방법과 먹의 농담을 배울 수 있도록 매화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표 5>과 같다.

<표 5> 사군자 교수·학습과정 안(2차시)

교과	미술	대상	초등학생 1~3학년	차시	2/6(60분)
학습 주제	사군자				
학습 목표	1. 사군자의 개념과 매화의 의미를 이해 할 수 있다. 2. 매화의 형태를 배우고 다양한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살려 표현 할 수 있다.				
준비물	ppt자료(매화에 대한 자료), 순지, 먹물, 동그라미 스펀지, 접시, 동양화 붓, 물티슈, 신문지, 물감, 면봉				
과정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자, ▷유)
도입 (5분)	예시 작품				<p>▶ 오달제, <묵매도 (墨梅圖)>, 먹, 국립중앙박물관</p> <p>▶ 출처 : 백인산 (2012), 「선비의 향기, 그림을 만나다. 화훼영모·사군자화」, 다섯수레.</p>

	<p>학습 동기 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군자의 개념을 설명한다. · 사군자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한다. · 매화의 의미와 형태를 이해한다. · 질문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p>학습 주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화의 의미에 대해 배우고, 스펀지 볼을 이용하여 매화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 	
<p>전개 (50분)</p>	<p>작품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화에 사진을 여러 장 인쇄하여 학생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매화 사진을 고른다. · 한지에 연필로 매화의 밑그림을 그릴 때, 두 선으로 그린다. · 노란 물감과 붉은 물감이 묻은 스펀지 볼로 나뭇가지 사이에 적당히 찍어 꽃잎을 표현한다. · 매화 꽃술은 먹물을 사용하여 얇은 붓이나 면봉으로 그린다. 	<p>▶ 순지의 예민한 재질에 대해 반복 학습을 위해 충분히 순지를 준비한다.</p>
<p>정리 (5분)</p>	<p>감상 활동</p> <p>차시 예고</p> <p>정리 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그리는 동안 느낀 점과 완성된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 다음 차시 예고를 한다. · 주변을 깨끗이 정리 한 후 인사를 한다. 	<p>▷ 다른 사람의 발표를 경청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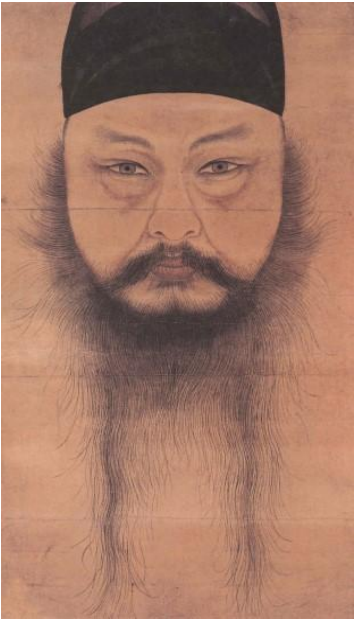
<표 6> 매화 작품 평가

	<p>매화의 꽃잎은 스펀지 볼에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묻혀 다섯 번씩 찍었고, 이로 인해 활짝 핀 매화가 생동감이 넘친다.</p>
	<p>화면의 구도가 단순하며, 구름법과 갈필법을 활용해 매화나무를 표현하였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표현능력이 향상되었다.</p>
	<p>그림의 나뭇가지를 보면 조형성이 뛰어나지만 스펀지 볼을 사용하여 물감을 찍었을 때, 잘 찍히지 않아 아쉬운 작품이다.</p>
	<p>매화는 활짝 핀 꽃과 봉우리를 구분하였고, 갈필법을 활용해 자세하게 매화나무를 표현하였다.</p>
<p>매화 수업에서는 매, 난, 국, 죽 작품들을 감상하며 각 이미지에 담겨 있는 옛 선비들의 고결한 정신을 배웠고, 갈필법을 활용해 매화의 꽃잎과 꽃술 표현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특히 스펀지 볼에 물감을 묻혀 찍었을 때 잘 찍히지 않아 불편했지만, 새로운 표현기법으로 인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졌다.</p>	

3) 자화상

자화상의 개념을 알아보고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선택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고 특징을 살려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자화상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표 7>과 같다.

<표 7> 자화상 교수·학습과정 안(3차시)

교과	미술	대상	초등학생 1~3학년	차시	3/6(60분)
학습주제	자화상				
학습목표	1. 자화상의 개념을 이해하고, 윤두서의 <자화상> 그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자신의 얼굴을 관찰해보고, 특징을 살려 여러 가지 색으로 그릴 수 있다.				
준비물	ppt(자화상에 대한 자료), 두방지, 물감, 붓, 붓펜, 먹물, 신문지, 물통, 자화상 그림 사진 복사본, 색연필, 이쑤시개, 사인펜				
과정	학습요소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자, ▷유)
도입 (5분)	예시 작품				▶ 윤두서 <자화상>, 조선, 국보 제240호 ▶ 출처 : 안휘준 (2000),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p>학습 동기 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화상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 윤두서의 <자화상>을 감상한다. · 질문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p>학습 주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자세히 관찰하여, 장단점을 살려 자화상을 그린다. 	
<p>전개 (50분)</p>	<p>작품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얼굴들을 개인별로 사진을 찍어 한 장씩 컬러로 복사한다.(혹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여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학생들은 투명한 종이를 활용해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여 밑그림을 그린다. · 먹물과 물을 조절하여 얇은 붓으로 선의 굵기를 그린다. · 얼굴 중에서 머리카락, 눈썹, 코 등을 자세히 그려야 하는 부분은 이쑤시개, 중간 붓펜 등을 사용하여 세밀하게 그려준다. · 자신의 얼굴에 특징을 살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색칠을 해준다. 	<p>▷ 다양한 재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p>
<p>정리 (5분)</p>	<p>감상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그리는 동안 느낀 점과 완성된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p>차시 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차시 예고를 한다. <p>정리 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을 깨끗이 정리 한 후 인사를 한다. 	<p>▷ 다른 사람의 발표를 경청한다.</p>

<표 8> 자화상 작품 평가

	<p>자화상을 그릴 때 검정색 사인펜으로 선의 특징을 표현하였고, 자신의 안경 쓴 모습을 선택해 그렸으며, 그 위에 색연필로 살짝 색칠하였다.</p>
	<p>입을 다물고 있는 자신의 무표정한 모습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p>
	<p>앞머리, 눈썹, 눈동자, 속눈썹, 옷의 문양까지 실제 자신과 닮도록 자세하게 표현하였다.</p>
	<p>자신의 얼굴을 관찰하여 물감과 색연필로 채색하였고, 특히 머리카락을 그리기 싫어하였다. 그런데 옷 색깔을 과감하게 표현하였다.</p>
<p>학생들은 자화상 수업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관찰한 후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력과 묘사력을 기를 수 있었다. 다양한 표현방법을 위해 먹물, 붓펜, 이쑤시개 등을 이용하여 선의 특징을 표현하였으며, 채색은 색연필과 물감을 사용하도록 하였다.</p>	

4) 영모화

영모화는 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윤두서 <말> 작품을 감상하며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 말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여러 동작들을 보면서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말의 여러 동작들을 관찰하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동작을 선택해 먹의 농담이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말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표 9>과 같다.

<표 9> 영모화 교수·학습과정 안(4차시)

교과	미술	대상	초등학생 1~3학년	차시	4/6(60분)
학습 주제	영모화				
학습 목표	1. 영모화의 개념을 알아보고, 윤두서의 <말> 그림에 대해 감상할 수 있다. 2. 말의 여러 동작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주도의 '말'을 표현 할 수 있다.				
준비물	ppt(말에 대한 자료, 그림 자료), 먹물, 붓, 물통, 물감, 크레파스, 신문지, 붓 펜, 채색 붓, 두방지				
과정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자, ▷유)
도입 (5분)	예시 작품				▶ 윤두서 <백마도>, 보물 제481호 ▶ 출처 : 안휘준 (2000),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p>학습 동기 유발</p> <p>학습 주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의 의미, 생김새,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 말 그림들을 감상한다. · 질문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말의 여러 동작들을 관찰한 후, 재료를 사용하여 말을 표현할 수 있다. 	
	<p>작품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이 풀밭에서 달리는 모습, 풀을 뜯어먹는 모습,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모습, 잔디밭에서 걷는 모습 등 말 동작 사진을 여러 장 복사한다. · 학생들이 그리고 싶은 말 동작 사진을 골라 표현할 수 있다. · 학생들은 두방지에 연필을 사용하여 말의 밑그림을 그린다. · 붓에 먹물을 묻혀 연필 선을 따라, 다시 한 번 선으로 밑그림을 그린다. · 제주 말의 색깔을 활용하여 흰색, 갈색, 검은색 물감을 사용하여 채색한다. (단, 흰색은 색칠하지 않으며, 검은색은 먹물을 사용하여 색칠한다.) 	<p>▷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p>
<p>정리 (5분)</p>	<p>감상 활동</p> <p>차시 예고</p> <p>정리 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그리는 동안 느낀 점과 완성된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 다음 차시 예고를 한다. · 주변을 깨끗이 정리 한 후 인사를 한다. 	<p>▷ 다른 사람의 발표를 경청한다.</p>


<표 10> 말 작품 평가

	<p>대지 위에 말이 앞다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그렸다. 특히 힘차게 솟구치는 말의 근육을 핑크색으로 채색하였으며, 하늘과 바람, 거친 들판의 표현을 위해 크레파스를 사용하여 들판과 말을 잘 표현하였다.</p>
	<p>바람을 가르며, 말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한 후, 그 특징을 살려 먹과 색연필로 표현하였다.</p>
	<p>말이 힘차게 달리고 있는 동작을 선택하여 묘사하였다. 말의 몸과 꼬리털은 먹으로, 머리와 갈기는 먹과 채색으로 서로 구분하여 표현하였다.</p>
	<p>잔디밭에서 말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모습을 선택해 배경까지 그려 한가로운 제주의 전원을 표현하였다.</p>
<p>영모화 수업에서는 제주도 <말>이라는 주제로 먹과 붓 등을 사용하여 말의 다양한 동작들을 표현하였다. 학생들은 말의 다양한 동작들을 관찰 한 뒤 표현을 어려워하여 이에 말 그리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또한 잘 번지는 화선지보다 두꺼운 두방지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채색함으로써, 말의 특징과 제주의 풍경을 잘 나타내었다.</p>	

5) 산수화

산수화의 개념을 알아보고 제주도 <천지연 폭포>, <한라산>, <성산일출봉>등을 표현할 수 있다. 동양화 붓으로 다양한 선의 굵기, 갈필법, 점묘법들을 배울 수 있고 산수화에 담긴 옛 선조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수화의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표 11>과 같다.

<표 11> 산수화 교수·학습과정 안(5차시)

교과	미술	대상	초등학생 1~3학년	차시	5/6(60분)
학습주제	산수화				
학습목표	1. 산수화의 개념을 알아보고, 정선의 <만폭동>에 대해 그림을 설명할 수 있다. 2. 전통 미술을 통해 다양한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살려 표현할 수 있다.				
준비물	ppt(산수화에 대한 자료), 순지, 먹물, 붓, 물감, 채색 붓, 물통, 신문지, 면봉, 스펀지 볼, 붓 펜				
과정	학습요소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자, ▷유)
도입 (5분)	예시 작품				▶ 정선<만폭동>. 견본 담채, 조선, 간송 미술관 ▶ 출처 : 안희준 (2001), 「한국회화사 연구」, 시공사.

	<p>학습 동기 유발</p> <p>학습 주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수화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 정선의 <만폭동>를 감상한다. · 질문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 제주도에 대표적인 <성산일출봉>, <산방산> 등을 감상하여 용구와 재료에 특성을 살려 표현할 수 있다. 	
전개 (50분)	작품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의 천지연 폭포, 성산일출봉, 한라산 등 여러 장의 사진을 인쇄한다. · 학생들이 자신 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진을 고른다. · 전통적인 산수화와 달리, 제주의 풍경화를 스케치 하고, 각자가 선택한 다양한 재료를 선택하여 완성할 수 있다. · 순지를 구겨서 연필을 사용하여 순지에 천지연 폭포, 한라산 등 밑그림을 그린다. · 다양한 선의 굵기를 이용하여 붓으로 먹물을 묻혀 연필 선을 따라서 다시 한 번 밑그림을 그린다. · 면봉, 스펀지 볼, 구긴 종이 등으로 먹물을 찍어서 여러 가지 물감들을 사용하여 채색 붓으로 채색한다. 	<p>▷ 재료가 주는 다양한 느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p>
정리 (5분)	<p>감상 활동</p> <p>차시 예고</p> <p>정리 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그리는 동안 느낀 점과 완성된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 다음 차시 예고를 한다. · 주변을 깨끗이 정리 한 후 인사를 한다. 	<p>▷ 다른 사람의 발표를 경청한다.</p>

<표 12> 산수화 작품 평가

	<p>면봉을 사용하여 성산 일출봉의 특징을 나타냈으며, 초록, 노랑, 파랑의 채색을 통해 여름을 표현하였다.</p>
	<p>물감보다 색연필이 좋고 편하다는 이 학생은 성산일출봉을 색연필과 먹, 붓으로 특징을 살려 자신 있게 채색하였다.</p>
	<p>구긴 종이를 사용하여 천지연 폭포를 표현하였으며, 폭포의 물줄기는 갈필로 묘사해 시원함을 나타내었고, 자신의 손가락에 물감을 찍어 잔디를 표현하는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였다.</p>
	<p>원근법과 면봉을 활용하여 산방산을 그렸고, 점묘법으로 돌하르방의 특징을 표현하였다. 표현과정 중 붓의 물 조절을 어려워하였지만, 제주의 특징을 잘 나타냈다.</p>
<p>산수화 수업에서는 색연필, 면봉 등 다양한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제주도<성산 일출봉>, <천지연 폭포>, <산방산>을 표현하였다.</p> <p>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표현활동과정에서 구긴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손가락에 물감을 묻혀 표현하는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제주의 특징을 표현하는 흥미로운 수업 활동을 하였다.</p>	

6) 화조화





화조화는 새, 꽃 등을 그린 그림으로 화조화의 개념을 살펴보고 신사임당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곤충, 새 등을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조화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표 13>과 같다.

<표 13> 화조화 교수·학습과정 안(6차시)

교 과	미술	대 상	초등학생 1~3학년	차 시	6/6(60분)
학습 주제	화조화				
학 습 목 표	1. 화조화의 개념을 알아보고, 신사임당의 다양한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 2. 신사임당의 작품을 관찰한 후 다양한 재료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준비물	ppt(화조화에 대한 자료), 두방지, 얇은 붓, 먹물, 붓 펜, 신문지, 물감, 색연필, 신문지, 채색 붓, 사인펜				
과 정	학 습 요소	교 수 · 학 습 활 동			자 료 및 유 의 점 (▶자, ▷유)
도입 (5분)	예시 작품				<p>▶ 신사임당 <초충도>, 8곡병, 종이에 채색</p> <p>▶ 출처 : 예술을 사랑한 신사임당 (2017), 레몬박스</p>

	<p>학습 동기 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조화의 개념을 설명한다. · 신사임당 <초중도> 작품을 감상한다. · 질문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p>학습 주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임당의 작품을 감상한 후, 여러 재료를 통해 표현한다. 	
<p>전개 (50분)</p>	<p>작품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임당 그림을 여러 장 복사한다. · 학생들이 자신 있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고른다. · 신사임당의 작품을 감상한 후 투명한 종이를 활용해 연필을 사용하여 두방지에 곤충, 새 등의 밑그림을 그린다. · 붓으로 먹물을 묻혀서 연필 선을 따라서 다시 한 번 밑그림을 그린다. ·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사진을 보고 관찰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p>정리 (5분)</p>	<p>감상 활동 차시 예고 정리 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그리는 동안 느낀 점과 완성된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 다음 차시 예고를 한다. · 주변을 깨끗이 정리 한 후 인사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발표를 경청한다.

<표 14> 화조화 작품 평가

	<p>신사임당의 <수박과 들쥐>를 묘사한 그림으로, 개성 있는 색채가 돋보인다. 휘어진 수박 넝쿨과, 꽃, 풀, 나비를 꼼꼼하게 표현하였다.</p>
	<p>초충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냈지만 표현이 부족해 특징이 잘 살리지 못하였다.</p>
	<p>학들은 강을 건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트레이싱 종이를 이용하여 학의 특징과 움직임 등을 드러내고 있다.</p>
	<p>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가지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그렸으며, 화려한 색채의 나비가 함께 어우러진 그림이다. 풀밭의 경계선, 나비의 크기, 이름 등 공간구성 및 채색이 재미있다.</p>
<p>곤충, 새, 과일, 꽃 등을 표현함으로써 채색 기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화조화에 대한 개념과 표현력, 다양한 소재의 배치를 사용하여 화면의 구성력을 배울 수 있었다.</p> <p>학생들은 다양한 재료들과 여러 용구들을 사용하여 채색하였으며, 이 수업을 통해 우리 고유의 독자적인 화조화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다.</p>	

3. 결과 분석 및 기대효과

한국화 표현활동을 위한 미술수업은 총 6차시로 계획한 후 진행하였으며, 한국화의 다양한 재료와 도구들을 사용하여 한국화 표현기법을 습득하였다. 이에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화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전통미술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다.

미술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한국화 재료인 두방지와 먹, 순지 등에 호기심을 보였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국화에 대한 인식과 표현 능력 또한 향상되었다. 이에 수업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시 민화수업은 학생들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먼저 민화의 개념을 이해시켰다. 전업 작가가 아닌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붓과 재료보다는 붓 펜, 검정 사인펜, 두꺼운 한지를 사용하여 쉽게 표현할 수 있었다. 완성된 작품에서 학생들은 매우 만족해하였고, 한국화 수업의 다음 차시 주제 인 매화에 대하여 예고 할 때 높은 기대감을 가졌다.

2차시 사군자 수업은 매화를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사군자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한 후 갈필법을 이용하여 매화의 나뭇가지를 그렸으며, 다양한 화면 구성을 위해 학생들은 먹과 붓으로 신문지에 연습하였다. 붓으로 나뭇가지를 그린 후 꽃잎을 물감으로 찍고, 면봉으로 노란 수술을 그리며 매화를 완성하였다.

3차시 수업에서는 윤두서의 <자화상>을 감상하고, 학생들은 투명한 종이를 이용하여 사진 속 자신을 그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를 신기해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지도교사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시범을 보이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결해주었다.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관찰하며 특징을 깨닫게 되었고, 완성된 학생들의 작품을 보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표현이 더 뛰어났다.

4차시 영모화 수업은 제주도의 <말>를 두꺼운 두방지에 먹과 붓을 사용하여 그려보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말의 여러 동작들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한 후 학생들은 그리고 싶은 말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말의 동작을 표현

을 어려워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완성한 작품에 대해 만족도가 낮았다.

5차시 산수화 수업은 <성산 일출봉>, <산방산>, <천지연 폭포>등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는데 위의 제주 풍경을 낚설어 하였다. 먼저 제주의 풍경을 사진으로 감상한 후 구긴 종이에 먹과 물감으로 채색을 하는 다양한 표현방법을 시도하였다.

6차시 화조화 수업은 신사임당의 작품을 감상하고, 이에 담긴 의미와 개념을 알게 되었다. 표현활동에서는 투명한 종이를 적용하여 꽃·새·곤충 등을 자세히 표현할 수 있도록 붓 펜과 검정 사인펜을 사용하였다. 그 중 붓의 물 조절과 밑그림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다시 그림을 그렸지만 완성된 작품에 만족한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아 아쉬움이 남은 수업이었다. 아마도 세밀한 표현의 화조화 수업이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수업인 듯하였다.

한국화 수업은 연구자가 설정한 표현 단계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교사의 발문에 학생들은 반응하였다. 한국화 표현 활동의 결과물을 살펴보면 미숙한 기법의 표현들이 많았지만, 반복적인 지도와 연습을 통해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화를 각 분류에 따라 미술수업에 적용한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화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한국화 소재들을 미술수업에 적용하여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이처럼 한국화의 표현활동을 적용하여 다양한 표현기법과 재료를 사용해 학생들의 개성이 표현된 창의적인 작품을 구상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도 대표적인 문화 요소들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화면구성과 화려한 색채감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학생들은 한국화 수업에 흥미와 관심을 보였으며, 작품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화를 적용한 미술수업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처럼 한국화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도방안과 자료들을 연구하고 수업에 적용하여 많은 학생들이 우리 전통 미술에 관심을 갖고, 전통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IV. 결 론

현재 7차 교육과정의 미술교육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업시수와 구체적인 지도방안의 부족으로 지도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국화를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지도안이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를 위해 제주도 초등학교 미술수업에 한국화 표현활동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한국화를 쉽게 접근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 안을 구상하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은 한국화를 민화·사군자·인물화·산수화·영모화·화조화의 6가지 분야로 수업하였다. 우선 한국화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였고, 학생들이 각 분야별 한국화 표현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 전통미술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영모화와 산수화 수업에서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문화요소를 적용하여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화 주제에 따른 여러 작품들을 감상하고, 표현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둘째, 한국화 재료와 용구 및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상 소재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표현기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다.

셋째, 학생들은 다양한 표현활동과정에서 색채와 화면 구성 등 한국화에 더욱 호기심을 보였다. 또한, 학생들은 한국화 수업에 집중도가 높았으며, 이로 인해 원만하게 수업이 이루어졌다.

넷째, 사군자와 민화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이를테면 사군자 중 매화가 상징하는 옛 선비들의 절개와 지조를 배우는 과정에서 조상들의 정신적인 내면세계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화에 대해서 보다 폭 넓은 지도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된다면, 학생들은 한국화에 더욱 더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미술수업에 참여할 것이

다. 이를 위해 교실에만 한정된 수업이 아닌 체험활동을 동반한 미술교육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및 지도방안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단 행 본 >

- 노경상(1995), 「한국화 백문백답」, 금호문화.
- 박용수(1999), 「한국미술사 이야기」, 예경.
- 박용숙(1994), 「한국화 감상법」, 대원사.
- 박차지현(2014), 「청소년을 위한 한국미술사」, 두리미디어.
- 백인산(2012), 「선비의 향기, 그림을 만나다. 화훼영모·사군자화」, 다섯수레.
- 송수남(1995), 「한국화의 길」, 미진사.
- 안동수(1981), 「전통 동양화 기법」, 미진사.
- 안휘준(2000),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 안휘준(2000),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 안휘준(2008), 「미술사로 본 한국의 현대미술」, 서울대학출판부
- 안휘준(2001), 「한국회화사 연구」, 시공사.
- 윤희순(1994), 「조선미술사통론」, 동문선.
- 이양재(2002), 「오원 장승업의 삶과 예술」, 해들누리.
- 이태호(1996).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 장경희 외 5명(1994), 「한국 미술문화의 이해」, 예경.
- 전영탁·전창림(2005), 「알고쓰는 미술 재료」, 미술문화.
- 정종미(2001), 「우리 그림의 색과 칠」, 학고재.
- 조용진(1992), 「채색화 기법」, 미진사.
- 조용진·배재영(2002),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 열화당.
- 조인수(2013), 「인물화, 군자의 삶, 그림으로 배우다.」, 다섯수레.
- 홍용선(2012), 「한국화의 세계」, 월간 미술세계.

<학 위 논 문>

김소정(2010), “주제별 관찰표현활동을 통한 한국화 지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화(2008), “계발활동에서의 한국화 표현지도 방안 연구 : 초등학교 4, 5, 6학
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지혜(2015), “방과 후 미술프로그램 수업지도안연구 : 한국화 표현활동을 중
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령미(2016), “제주 향토문화를 활용한 미술수업 지도방안 : 초등학교 저학년 중
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묵(2012), “한국화의 표현활동을 위한 지도 연구 : 중학교 1학년을 중
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 타 문 헌>

박지수(2016), 「이렇게 해봐요. 미술교과서 : 한눈에 보는 초등미술교과서 실기
지도서」, 미진사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년 개정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
육과학기술부

<ABSTRACT>

A study on the Guide of Expression Activities for Korean Painting
- Focused on the Low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

Su-Eun Song

Major in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n academic advisor
Supervised by professor Jung-Myung Kwack

The purpose of art education is to nurture a holistic person with the ability which can develop aesthetic sensibility and creative expression ability through various art activities and advance on a new art culture. To do this, students need a curriculum which can train them not only explore various aesthetic experiences and art cultures in their daily lives but also learn their own traditional art and the wide art world.

In response, by acquiring various expressive techniques of Korean painting through Korean expression activities, this curriculum makes students possibly to express Korean paintings that they could not easily ge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students to find out the value of traditional art and to make them have pride in traditional culture.

Art classes for Korean painting activities were held in 1st, 2nd and 3rd grades of 'O' elementary school in Jeju-si and 'P' elementary school in Seogwipo-si. The class selected six areas: folk painting(Minhwa), the Four Gracious Plants(Sagunja), figure painting(Inmulhwa), landscape painting(Sansuhwa), a painting of birds and animals(Yeongmohwa), and a painting of flowers and birds(Hwajohwa). After explain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painting, we made use of easily accessible items such as brush pen, cotton swab and toothpick along with Korean painting tools. The study plan was drawn up, considering that students are not accustomed to the expression of Korean paintings.

First, for the purpose of smooth expression activity, in advance the subject

was selected by the field: plum-blossom(Maehwa) as the Four Gracious Plants(Sagunja), horse in Jeju Island as a painting of birds and animals(Yeongmohwa) and the landscapes of Jeju Island as landscape painting(Sansuhwa).

Second, in order to enable students to acquire expressive techniques easily, it was applied to use various colors of Korean paper(Hanji, Sunji and Dubangji) in teaching-learning method.

The results of the lesson conduc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who learn Korean painting, a unique Korean art, can experience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culture.

Second, by experiencing and practicing the various genres of Korean painting, students were able to lear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ainting and techniques of traditional expression naturally.

Third, with using usual materials such as cotton swabs and brush pens, rather than tools that are difficult for students to use, students could understand the diversity of expression while they expressed their individuality.

Fourth, they were able to understand the emotions and the inner spiritual world of our ancestors through the Four Gracious Plants(Sagunja) and folk painting.

In this way, I could confirm that Korean painting lessons are an opportunity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and familiarity with traditional Korean art. By continuously developing the teaching method of Korean painting, I hope that students' creative expression ability, enthusiasm and interest in traditional art education will be enhanced. This will serve as an effective way to inherit our traditional art to the current generation.

※ This paper is a master's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ommittee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n February 2019. 2